투데이 칼럼

길 없는 길

김 진
김진명리학회 회장

인생은 완성된 지도로 시작하는 여행이 아니다. 점 하나 없는 빈 노트를 자기가 직접 작성해가야 하는 쓸쓸하고도 고독한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이정표도 없고, 발자국도 없는 초행길에서 우리는 자주 불안과 의심을 마주하게 된다. 내 길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어떤 얼굴의 생을 마주하게 될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기 마련이다. 일상에서 흔히 운명은 하늘이 써놓은 각본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서사는 성실한 걸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운명은 거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발걸음이 남긴 자취들이 겹겹이 쌓여 그려지는 설계도다.

영국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의 마음을 '백지(Tabula Rasa)'로 비유했다. 태어날 때 미리 새겨진 결정적 운명의 도면은 없으며 오직 경험이라는 펜으로 서서히 채워진다는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운명이란 예정된 결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순간이 한 획씩 더해지며 완성해가는 그림과 같다. 즉, 인간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새겨 넣는 조각가이다. 우리의 길은 그려져 있는 선이 아니라, 매 순간 맞닥뜨리는 풍경의 빛깔로 채워지는 화폭이다.

고대 스토아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흔들리는 인간에게 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권했다. 타인의 평가나 우연한 사건은 우리의 힘을 벗어나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태도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이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른 형상으로 굳어진다. 그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운명은 쇠사슬이 아니라 태도의 거울이며, 내면의 자유가 어떤 길을 드러낼지 가늠하게 한다.

독일 철학자 헤겔은 개인의 길이 홀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각자의 삶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 즉 '정신(Geist)'의 진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세계사의 진보를 이끄는 한 조각이 된다.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 시대의 한 자락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개인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시대의 맥락 속에서 새롭게 해석된다. 운명이란 개인적 서사와 역사적 직물이 얽혀서 비로소 완결을 향해 나아간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노스는 영혼이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말한다. 진정한 길은 바깥이 아닌 내면으로 향한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외부의 유혹과 소음에서 길을 잃기 쉬운 우리에게 그는 침묵과 성찰을 통한 자기 정화에서 영혼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그에게 운명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마와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완성에 가깝다. 인간이 내면을 갈고닦을 때, 운명은 외부의 굴레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피어나는 길이 된다.

이러한 사유를 종합해 보면 운명은 단일한 이론으로 환원될 수 없다. 경험과 선택의 연쇄(로크), 태도와 내면의 자유(에픽테토스), 시대와의 교차점(헤겔), 그리고 내면의 귀환(플로티노스)이 서로 겹치며 각각의 서사를 빚어낸다. 한 번의 결단이나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는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길을 만들고, 그 길이 다시 나를 규정해간다. 물방울이 끈질기게 바위를 깎아내듯, 일상의 작은 판단들이 지형을 다듬어 간다.

그래서 '길 없는 길'을 마주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의 의미만은 아니다. 그것은 아직 쓰이지 않은 여백을 손에 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계획된 지도가 주지 못하는 우연과 발견, 그리고 내가 결정한 태도로써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동시에 들어 있다. 시련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선을 그어내는 동력이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의 갈등은 무엇을 뜻하는가. 타인의 잣대인가, 환경의 불가항력인가, 아니면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았던 가능성의 조짐인가.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갈등은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운명은 고정된 대본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경험하고 반응하며 시대와 호흡하고, 또 마음을 가다듬어가며 함께 써 내려가는 서사이다. 힘들더라도 기억하라. 힘듦은 당신의 길을 만들어 주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사 설

홍삼 뇌 노화 방지 효과

홍삼이 뇌의 노화를 막아주고 혈당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은 홍삼의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홍삼이 뇌 신경을 보호해 항노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홍삼의 유효성분이 뇌의 어느 위치로 이동해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결과 관찰된 내용이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에 특수 형광 물질을 결합해 실험동물에 투여한 결과 진세노사이드가 혈뇌장벽을 통과해 뇌 신경 보호 및 항노화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

항노화 건강식품 및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삼이 혈당 감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도 소개했다. 당뇨병 전단계인 40세 이상 한국인 98명을 홍삼 농축분말 섭취군과 위약 섭취 대조군으로 나눠 12주간 비교 분석했다.

홍삼 섭취군의 식후혈당은 대조군보다 11.3%, 공복혈당은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슐린 분비 및 작용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도 홍삼 섭취군이 45.6% 더 높았다.

홍삼추출물 분말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홍삼이 수면의 질을 높이며 항산화 효과도 나타냈다.

기능성 항목은 면역력 증진,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갱년기 여성건강, 혈당 조절 등 7가지다. 미국에서도 홍삼이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라는 점이 점점 알려지고 있다.

공포가 된 전주 '가로수'

전주의 한 도심에서 가로수가 주민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전주 시내 한 도심가에 키가 큰 가로수들이 늘어서 있다.

메타세쿼이아를 닮은 이 나무의 이름은 '낙우송'이다. 이 일대에만 140여 그루가 심어져 있다. 택지 조성과 함께 30년 가까이 자라면서, 독특한 특징 하나가 나타나고 있다.

낙우송 뿌리를 '기근'이라고 하는데, 공기 중으로 노출된 뿌리를 뜻한다. 30~40년 이상은 돼야 기근이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가로수 뿌리가 솟아오르면서 보도블록이 3~5cm 가까이 들떠 있다. 촬영 도중 한 행인이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인도에 나무뿌리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보행자가 그냥 툭 걸려서 넘어지기 십상이다. 문제는 가로수 뿌리가 보행로 주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로수에서 10미터 가까이 떨어진 작은 화단에도, 나무뿌리가 듬성듬성 자라나 있다. 심지어 성인 팔뚝 굵기의 뿌리가 오수관 주변까지 파고든다.

관을 파손시키거나 관을 막아버리는 사례도 수년째 잇따랐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혼자만 겪는 문제인 줄 알았다. 화장실 변기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튀고 난리가 나기도 한다.

사비를 들여서 오수관 공사를 한 곳도 있다. 결국 주민 90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전주시는 뒤늦게 심각성을 알게 됐고, 올해 가로수 교체 예산으로 2억여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공사 난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은 미뤄지고 있다.

독자제언

올바른 선거문화, 존중·배려에서 시작된다

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는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선거벽보가 게시되며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선거벽보와 현수막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선거 홍보 수단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장난이나 불만 표출 등의 이유로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경범죄가 아닌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 부분을 찢거나 검게 칠하는 행위,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떼어내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벽보 훼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최근에는 SNS 인증이나 재미를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뒤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순간의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선거는 특정 후보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축제이자 권리 행사 과정이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 후보라고 하더라도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태도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주요 게시 장소에 대한 순찰과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 또한 훼손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112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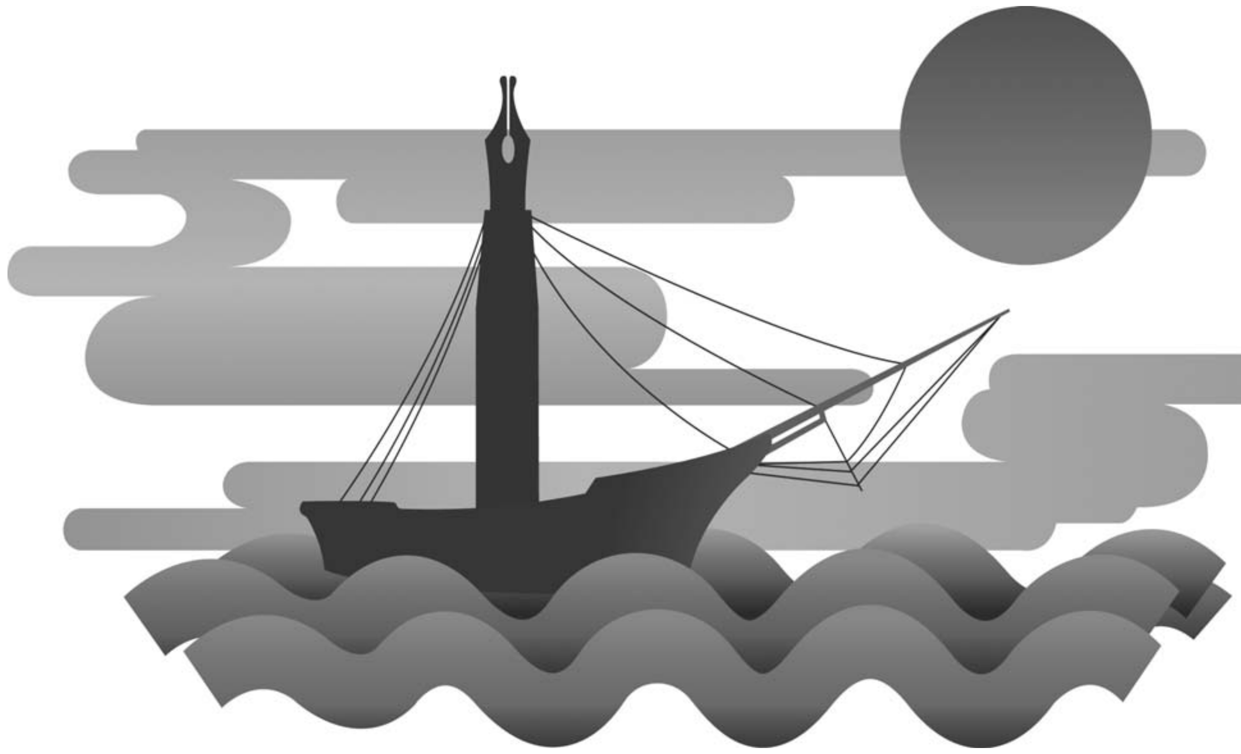
깨끗한 선거문화는 작은 시민의식에서 시작된다. 선거 벽보 한 장, 현수막 하나에도 민주주의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유서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내·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